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해야 FTA 넘는다”

종합적인 생물방제산업 육성을 하고, 종자산업 및 대규모 수출기업 등이 집적화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개방과고를 이겨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친환경 농생명산업 육성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전남도 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이하 나노센터) 이재의 소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노센터와 광주·전남지역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는 22일 전남대 농업특성화사업센터 산학협력관에서 ‘FTA 위기를 기회로’라는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 소장은 “산·학·연·관·민 등이 협력해 2008년부터 늦어도 2012년까지 곡성군 입면에 생물방제산업

전남 나노센터 ‘친환경농업 육성 심포지엄’

“수출농 경쟁력 강화위해 집적화 필요”

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농생명 산업 시범복합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 복합단지가말로 FTA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축안에 따르면 복합단지는 ▲생물방제 클러스터=천적·천연 농약·농자재 개발 ▲경쟁 유망작목 발굴=품종·육종·재조합자 설치 ▲수출농 전문단지=생물방제 원예단지, 재생에너지 조성 ▲교육·홍보센터 등으로 짜여진다.

이 소장은 “복합단지가 성공리에 구축될 경우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 및 수출농 육성단지로 발돋움해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연관산업에 따른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역 소득증대에도 적잖이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복합단지의 경우 국비 프로젝트로 기반조성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성과를 좌우한다”면서 “현재 대학·연구원·민간기업 등 5개

기관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박종근 교수(전남대)의 ‘FTA 이후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안형덕 사무관(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오내원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국농업·농촌의 비전과 과제’, 이원규 대표(세실)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정봉진 상무(동부한농)의 ‘한국 유기농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나노센터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따른 생물적 방제의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도에 의해 설립됐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대주피오레 수완지구에 1,720세대 분양

내일 2차 36~50평형 공급
25일 배우 정준호 팬사인회
4,000여세대 대단지 ‘눈길’



대주건설은 23일 광주 수완택지지구에 들어설 ‘피오레’아파트 1천720세대(조감도)를 2차로 신규 분양한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수완지구 ‘피오레’ 2차는 지난해 8월 분양한 1차분(1천880가구)과 앞으로 선보일 3차분(213가구) 등 총 3천813가구의 초대형 단지를 이뤄 관심을 끈다.

평형별로는 중소형의 경우 36평형(A/B) 285세대, 36평형(B) 47세대, 37평형(A/B) 273세대, 38평형(A/B) 570세대이며, 중대형은 43평형(A/B) 175세대, 46평형 96세대, 50평형 274세대 등이 공급된다. 평당 분양가는 550만~700만원으로 다양하게 책정돼 있다.

수완택지지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지구 전체를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디자인 시티’로 조성할 계획

차 발표는 29일로, 계약은 6월4일부터 사흘간 실시한다.

수완지구는 호남권 최대인 140만평 규모의 자족형 주거단지로, 평동, 하남, 첨단 등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서도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고 있다. 또 뛰어난 교통여건을 비롯, 쇼핑, 교육,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주시역 ‘제2의 신도심’으로 꼽힌다.

수완택지지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지구 전체를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디자인 시티’로 조성할 계획

이다. 지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을 포함, 전체 면적의 22.7%에 해당하는 32만여평이 녹지로 조성된다.

모텔하우스는 23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대주하우징 갤러리에 개관한다. 회사측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모텔하우스에서 ‘피오레’ 광고모델인 영화배우 정준호씨 팬사인회를 연다. 또 계약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대형 승용차 1대를 증정한다. 문의 062-367-30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직장인 이럴때 중소세 대상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대상 여부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세무서에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중소기업 신고안내문을 받고 혼동하기 쉬운 유형을 모아 21일 소개했다.

▲주택 임대소득있을때 =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서 작년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중소기업 신고해야 한다.

▲직장을 옮길때 = 직장을 옮긴 직장인의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엔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기 교사 등은 인적용역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 세액이 내야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지펠 페스티벌’ 6월15일까지 계속된다.

21일 서울 현대 아이파크에서 삼성전자 ‘지펠게이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무용단원들이 탭댄스공연을 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6월15일까지 계속된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주택대출 고정금리도↑

올들어 0.19~0.28%P ... CD 금리와 덩달아 올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상승으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내나 국고채 등 장기채권 금리가 CD금리 못지않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선택

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권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18일 현재 연 5.37%로 작년 말(5.15%)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CD 금리는 4.86%에서 5.07%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장기채권

금리가 CD 금리 못지않게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포유 장기대출’의 3년 고정금리는 지난해 마지막 주 최고 7.37%에서 이번 주 최고 7.65%로 0.28%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부 대출금리는 이번 주 5.78~7.38%로 같은 기간 0.27%포인트가 인상됐다.

신한은행 ‘장기모기지론’의 경우 3년 고정금리가 작년 12월29일 6.13~7.23%에서 21일 현재 6.34~7.44%로 0.21%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은행 ‘아파트플러스론III’도 3년 고정금리가 21일 현재 6.31~7.81%로 작년 12월29일보다 0.19%포인트 인상됐다. /정필수기자 bungy@

대부업 이자율 年 50%대로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이자율 자필기재 의무화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의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지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려면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만 한다.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인화된 다. 현행 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

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내려가면 시행령의 이자율 66%도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상 한도(연 40%)를 초과해 대출하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 이자율은 30%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 여부 조사와 이에 관련된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화재 6년 연속 흑자 달성

어제 창립 61돌 기념식

대한화재가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대한화재는 21일 서울 남창동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2006회계연도 원수보험료(매출)가 2005회계연

협에서 업계 평균(21.0%)을 넘어선 50.9%의 높은 매출 성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도 각각 15.6%, 19.8%의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이준호 대한화재 사장은 “올 회계연도에는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와 퇴직연금시장 진출 등을 통해 7년 연속 흑자와 1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투 최호 일본 구제 밀터샵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분좋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희망의 품격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